

금호타이어 광주공장 11월도 가동 못하나

임단협 협상 결렬 파업 현실화...노조 “사측 결단 없으면 쟁의권 행사”
5월 화재 악재 겨우 딛고 10월 재가동 합의했지만 생산 일정 ‘안갯속’

지난 5월 대형 화재로 가동이 중단된 금호타이어 광주공장의 ‘노조 쟁의 행위(파업) 우려’가 현실로 다가오고 있다.

20일 전국금속노조 금호타이어지회에 따르면 이날 오전 사측과 교섭 끝에 결렬을 선언하고 쟁의대책위원회를 열어 오는 22일부터 이틀간 부분 파업을 예고했다. 현재 광주공장은 4조 3교대 사업장이며, 조별 4시간씩 부분 파업이 진행될 예정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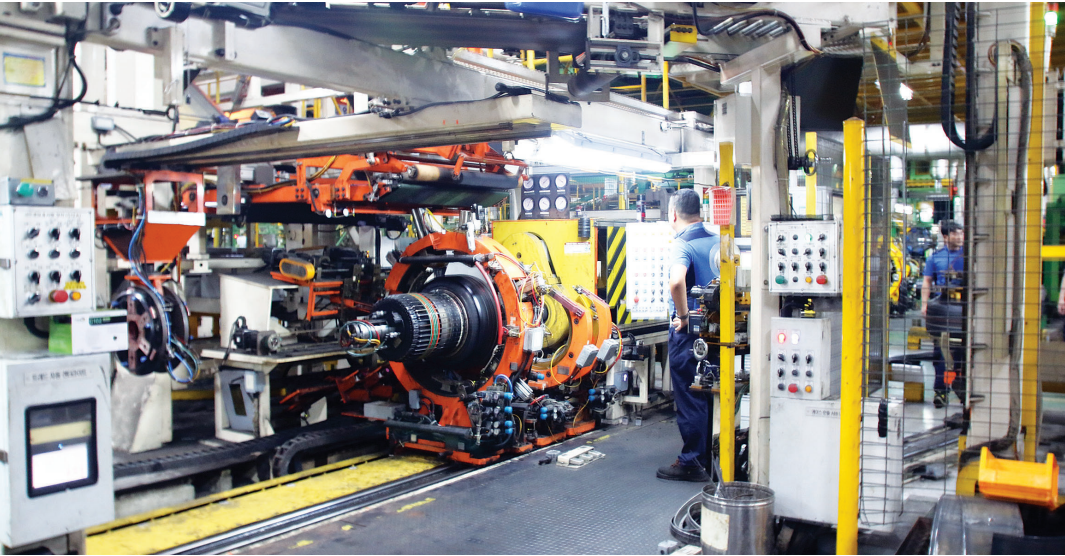
앞서 노조는 지난 12~13일 전체 조합원 3493명 중 3261명이 투표해 93.65%(3054명)의 찬성률로 쟁의권을 확보했다. 이후 사측이 교섭을 요청함에 따라 집중 교섭이 이어졌지만 임금 인상과 성과급 지급 등 핵심 쟁점에서 합의점을 찾지 못한 채 결국 결렬됐다. 노조 측은 “지난 19일까지 하루도 빠짐없이 집중 교섭을 했지만 회사 입장에 변화가 없었

다”고 주장했다.

노조는 기본급 인상과 지난해 실적 달성 성과급 지급 등을 주요 요구안으로 내세우고 있다. 반면 사측은 지난 5월 화재로 전면 중단된 광주공장 복구와 합평 신공장 건설, 해외 시장 대응 등 공장 최대 현안 해결을 우선으로 두고 협상을 진행해 왔다.

광주공장은 지난 7월 노사 간 합의에 따라 ‘10월 내 생산 재개’를 목표로 시범 가동을 돌입했지만, 이번 노조의 파업 결정으로 생산 일정이 다시 불투명해졌다. 불과 한 달 전까지만 해도 ‘10월 본격 재가동’이 가능하다는 낙관론이 대세였지만, 노사 갈등이 이어지면서 지역 사회의 기대감은 다시 불안감으로 바뀌고 있다.

특히 이번 파업이 장기화할 경우 5개월째 멈춰 선 광주공장 관련 협력 업체는 물론 지역 경제 전반



금호타이어가 광주공장 노동자가 지난 5월 화재 이후 10월 재가동을 위해 성형기 시범 가동을 하고 있다.

으로 악영향이 확산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광주공장은 또 금호타이어 전체 생산량의 절반 이상

을 담당하는 최대 생산 기지라는 점에서, 재가동 지연이 전체 납품 일정 차질로 이어질 가능성도 제기

된다.

광주경영자총협회 관계자는 “대형 화재의 아픔을 딛고 공장 재가동만을 기다려온 지역 사회의 바람이 파업 돌입으로 인해 무산될 위기에 처해 안타깝다”며 “지금은 노사 모두 양보와 타협이 절실한 시점으로 파업보단 대화 테이블에 마주 앉아 합리적인 해결책을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금호타이어 사측 관계자는 “노조 부분 파업이 22일로 예고된 만큼 아직 교섭의 여지는 남아 있다”며 “회사의 경영 상황 등을 고려해 노조와 지속적으로 협상을 이어가는 중이다. 노사 모두가 성실하게 교섭에 임해 원만하게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금호타이어 광주공장은 지난 5월 발생한 화재로 멈추면서 5개월째 가동이 중단된 상태다. 재가동 합의 당시 노사 모두 “정상 가동이 최우선 과제”라며 공감대를 보였지만 이번 노조의 파업 돌입으로 재가동 시점은 다시 안갯속으로 빠져들었다.

/김해나 기자 khn@kwangju.co.kr

군공항 이전 국가재정 전환 등 9대 지역 현안 해법 모색

민주 호남발전특위·광주상의 간담회
달빛철도 예타 면제 공동과제 제시

더불어민주당 호남발전특별위원회와 광주상공회의소가 군공항 이전, AI 2단계(AX 실증밸리) 국비 비율 상향, 광역교통 확충, 국립문화 인프라 유치 등 지역 9대 현안의 해법을 논의했다.

20일 민주당 호남발전특위에 따르면 이날 오전 광주상의에서 간담회가 진행됐다. 간담회에는 이병훈 민주당 호남특위 수석부위원장과 한상원 광주상의 회장을 비롯해 특위 위원, 상공회의소 관계자가 참석했다. 지역 기업들의 애로와 정책 수요를 직접 청취하고, 경기 둔화와 투자 위축 속에서 실효성 있는 지원 수단을 끌어내기 위한 자리였다.

광주상의가 제시한 9대 과제는 군공항 이전의 국가재정 전환, 광주 AX 실증밸리(국가 AI 2단계) 국비 비율 상향, 호남선 KTX 증편과 차량 배정 개선, 한국에너지공단 출연금 거버넌스 정비, 지역 특성 반영한 제2차 공공기관 지방 이전, 광주-대구 달빛철도 예타 면제와 조기 착공, 국립현대미술관광주관·국회광주도서관·대한민국역사박물관 광주관 유치 등으로 요약된다. 산업·교통·교육·



더불어민주당 호남발전특별위원회와 광주상의의 관계자들이 20일 광주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정책 간담회에 참여해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광주상의 제공>

문화 전반을 아우르는 의제이며, 재정 지원과 제도 개편, 중앙정부의 정책 결정이 동시에 요구되는 안건들이다.

이병훈 수석부위원장은 “논의한 현안은 더 미룰 수 없는 과제”라며 “정부 재정 지원을 통해 실질적 진전을 이끌고, 현장의 목소리가 실제 해결로 이어지도록 구조적으로 뒷받침 하겠다”고 밝혔다.

간담회에서는 또 ‘AI 중심도시’ 전략의 실질화

를 위해 AX 실증밸리(국가 AI 2단계) 사업의 국비 비율 상향과 연계 인프라 확충이 필요하다는 데 의견이 모였다.

민주당 호남특위는 앞으로도 지역 기관·단체와의 간담회를 이어가 현안을 직접 듣고, 당·정 정책에 반영하는 청취·협력 과정을 지속할 계획이다. 광주상의도 기업 애로 해소와 투자 촉진을 위한 정책 아이디어를 추가 발굴해 공동 대응에 나설 방침이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광주 카드 대출 연체율 5년 연속 전국 평균 상회

연체액 광주 25%·전남 32% 늘어

은행 대출 문턱이 높아지면서 카드 대출로 내몰린 광주·전남 지역민의 연체액이 5년 연속 불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국민은행 강민국(경남 진주시을)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8월 말 기준 카드 대출을 받고 한 달 이상 연체한 금액은 광주 390억원(7000건)·전남 370억원(7000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보다 광주 25.8%(80억원), 전남 32.1%(90억원) 증가한 액수다.

카드 대출은 은행 대출 조건을 맞추기 어려운 취약 차주 등이 단기 대출인 ‘현금서비스’와 장기 대출인 ‘카드론’ 등 급한 불을 끄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돼왔다.

코로나19 등으로 가리앉은 경기 회복이 더디지면 서 카드 대출금을 갚지 못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광주지역 카드 대출 연체액은 2021년 220억원→2022년 250억원→2023년 270억원→2024년 310억원→올해 390억원 등으로 해마다 수십억원씩 불고 있다. 전남지역도 같은 기간 200억원→240억원→240억원→280억원→370억원 등으로 증가 추세다.

광주의 경우 카드 대출 연체율은 전국 평균을 5년 연속 웃돌고 있어 자산 건전성이 악화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올해 8월 기준으로만 해도 광주에서는 28만9000건(1조1460억원), 전남은 29만8000건(1조1770억원)을 카드 대출을 받았다.

강민국 의원은 “카드 대출의 경우 서민 자금공급자 구실을 할 수 있도록 균형 있게 관리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금융 당국은 카드 대출 연체를 추이 등에 대한 감시를 늘리고 카드사 부실채권을 안정적으로 관리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농어촌공사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재지정

한국농어촌공사(공사)는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F)’ 인증기관’으로 재지정돼 오는 2028년 9월까지 인증 업무를 수행한다”고 20일 밝혔다.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제도는 어린이, 노인, 장애인, 임산부 등이 불편함 없이 시설을 이용·이동할 수 있도록 계획·설계·시공·관리 여부를 공사 등 11개 인증기관이 평가해 인증하는 제도다.

공사는 2022년 BF 인증기관으로 지정된 뒤 2023년부터 인증 업무를 수행해 왔다. 특히 전담 조직 운영 및 내부 전문가 양성으로 인증 역량을 높이고, ‘BF인증 해설서’와 ‘마을회관 설계 가이드라인’을 발간해 BF개념 확산 및 실무 적용을 도왔다.

이를 통해 2023년에는 서울 유니버설디자인어워드 대상, 대한민국 국토대전 국토연구원장상 2년 연속 수상 등의 성과를 거뒀다. 이 같은 성과를 인정받아 BF 인증기관으로 재지정받을 수 있었다는 평가다. 공사는 앞으로도 인증기관으로서 전문성을 제고하고, 위촉 심사 전문 인력을 적극 활용해 인증 실적을 확대할 계획이다.

강신길 한국농어촌공사 농촌공간계획처장은 “안전하고 편하게 시설을 이용하는 것은 모두에게 주어진 권리”라며 “공사는 BF 인증 업무와 더불어 농어촌 공간에서 차별 없는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장윤영 기자 zzang@kwangju.co.kr

제조업 75% “올해 영업의 목표 미달”

경영 전망 코로나 때보다 부정적

제조기업들의 경영 실적 전망이 코로나19 당시보다 더 부정적인 것으로 조사됐다.

불확실한 경영환경 속 법인세 인상, 상법·공정거래법 등을 포함한 규제 강화가 경영 부담에 대한 우려를 심화시킨 것으로 분석된다.

대한상공회의소(대한상의)가 20일 전국 제조기업 2275개를 대상으로 ‘2025년 기업 경영실적 전망 및 애로 요인 조사’를 실시한 결과 제조기업 75.0%가 올해 영업이익이 연초 설정한 목표 수준에 미달할 것으로 전망했다. 코로나19가 시작된 2020년 이후 진행된 조사에서 ‘목표치 미달’에 응답한 기업 비중(74.0%)보다 높은 수준이다.

올해 영업이익이 목표치 수준에 부합할 것으로 응답한 기업은 20.4%, 목표치를 초과 달성할 것으로 답한 기업은 4.6%에 불과했다.

올해 영업이익 적자를 예상한 기업은 32.1%로, 흑자를 예상한 기업(27.0%)보다 많았다. 지난해 흑자에서 올해 적자로 돌아선 기업 비중은 7.1%로 적자에서 흑자로 전환했다고 응답한 기업(3.1%)의 두 배를 넘었다.

제조기업들은 경영상 비용 측면에서 겪고 있는 가장 큰 애로사항으로 ‘원자재가 상승’(42.5%)과 ‘인건비 상승’(30.4%)을 꼽았다. 이어 ‘환세 증가’(8.9%), ‘이자 등 금융비용’(8.0%)이 뒤를 이었다.

시장 침체와 함께 물가 상승 및 불확실한 글로벌 통상 환경으로 인한 수익성 악화가 기업들의 발목을 잡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기업들이 체감하는 경영 규제에 대한 부담은 오히려 늘어났다는 응답이 많았다.

올해 기업경영 관련 법·제도 부담에 대해 체감하는 변화를 묻는 질문에 응답기업의 과반수(50.5%)는 ‘변화 없다’고 답했고, 44.3%의 기업은 ‘부담이 가중됐다’고 응답했다. 부담이 ‘감소했다’고 답한 기업은 5.2%였다.

정기국회의 입법 논의 중 제조기업들이 가장 우려하는 부분은 ‘법인세 인상’ 등 기업비용 증가(50.5%)였다. 상법·공정거래법 등 ‘기업제도 규제’ 강화를 우려하는 기업도 40.6%로 많았다. ‘노사관계 부담 중대’(38.6%)를 우려사항으로 꼽은 기업도 적지 않았다.

/김해나 기자 khn@

IMF “한국 1인당 GDP 대만에 역전 당할 듯”

올해 37위로 하락 전망

국제통화기금(IMF)이 한국의 1인당 국내총생산(GDP)이 지난해 세계 34위에서 올해 37위로 1년 사이 세 계단 주저앉을 것으로 전망했다. 대만은 38위에서 35위로 순위가 세 계단 상승해 22년 만에 한국을 역전할 것으로 내다봤다.

20일 한국은행 등에 따르면 IMF는 지난 15일 발표한 ‘세계경제전망’(World Economic Outlook) 보고서에서 올해 한국의 1인당 GDP를 3만 5962달러로 예상했다. 지난해(3만 6239달러)보다 0.8% 감소할 것으로 본 것이다.

이에 따라 IMF 통계에 포함된 197개국 중 한국의 1인당 GDP 순위는 지난해 34위에서 올해 37위로 하락할 것으로 전망했다.

IMF는 한국이 3년 뒤인 2028년 4만 802달러로, 1인당 GDP 4만 달러 시대를 열 것으로 예상했다. 올해 4월 전망 때 2029년 4만 달러 돌파를 예상했던 것보다 1년 앞당겨졌다.

다만 1인당 GDP 세계 순위는 올해 37위에서 내년 38위로 더 하락한 데 이어 2028년 40위, 2029년 41위 등으로 계속 미끄러질 것으로 봤다. 이같이 어두운 전망은 대만과 정반대다.

IMF는 대만의 1인당 GDP가 작년 3만 4060달

라에서 올해 3만 7827달러로 11.1%나 증가하면서, 세계 순위도 38위에서 35위로 단숨에 세 계단 뛴 것으로 예상했다. 내년에는 4만 1586달러로 한국보다 2년 앞서 4만 달러 선을 돌파하고, 세계 순위가 31위까지 치솟을 것으로 전망했다.

IMF는 대만이 이례적인 고속 성장세를 유지해 5년 뒤인 2030년 1인당 GDP가 5만 252달러로, 5만 달러 선까지 넘어설 것이라고 분석했다. 한국의 2030년 1인당 GDP 전망치는 4만 4262달러에 그쳤다.

IMF는 또 일본은 1인당 GDP가 작년 3만 2443달러에서 올해 3만 4713달러로 7% 가까이 증가하겠지만, 세계 순위는 계속 40위에 머무를 것으로 전망했다.

/장윤영 기자 zzang@kwangju.co.kr



과 안정적인 자산관리를 경험하실 수 있도록 마련했다”며 “앞으로도 고객 중심의 연금서비스,

세테크 지원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장윤영 기자 zzang@kwangju.co.kr

광주은행, 개인형 퇴직연금 ‘K-IRP 절세 가디언즈’ 이벤트

1035명에 상품권 등 경품 지급

광주은행은 20일 “개인형 퇴직연금(IRP) 고객을 대상으로 ‘K-IRP 절세 가디언즈’ 이벤트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개인형 IRP는 퇴직금과 개인 납입금을 통해 노후자금을 관리할 수 있는 연금 계좌로, 연간 최대 900만원까지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벤트는 개인형 IRP 신규 고객과 기존 고객 모두 참여할 수 있으며, 개인형 IRP 신규(적립), 추가입금, 퇴직금수령 또는 타기관 IRP 가져오기, 목표 시점 펀드(TDF·Target Date Fund) 운용 등 네 가지 부문으로 진행된다.

부문별로 이벤트 조건을 충족하면 추첨에 자동 응모되며, 1035명에게 스타벅스 e쿠폰, 카카오페이포인트, 신세계상품권 등을 제공한다.

이벤트는 이날부터 내년 2월 27일까지 진행된다.

임양진 광주은행 신박본부 부행장은 “이번 이벤트는 고객들이 개인형 IRP를 통해 세제 혜택